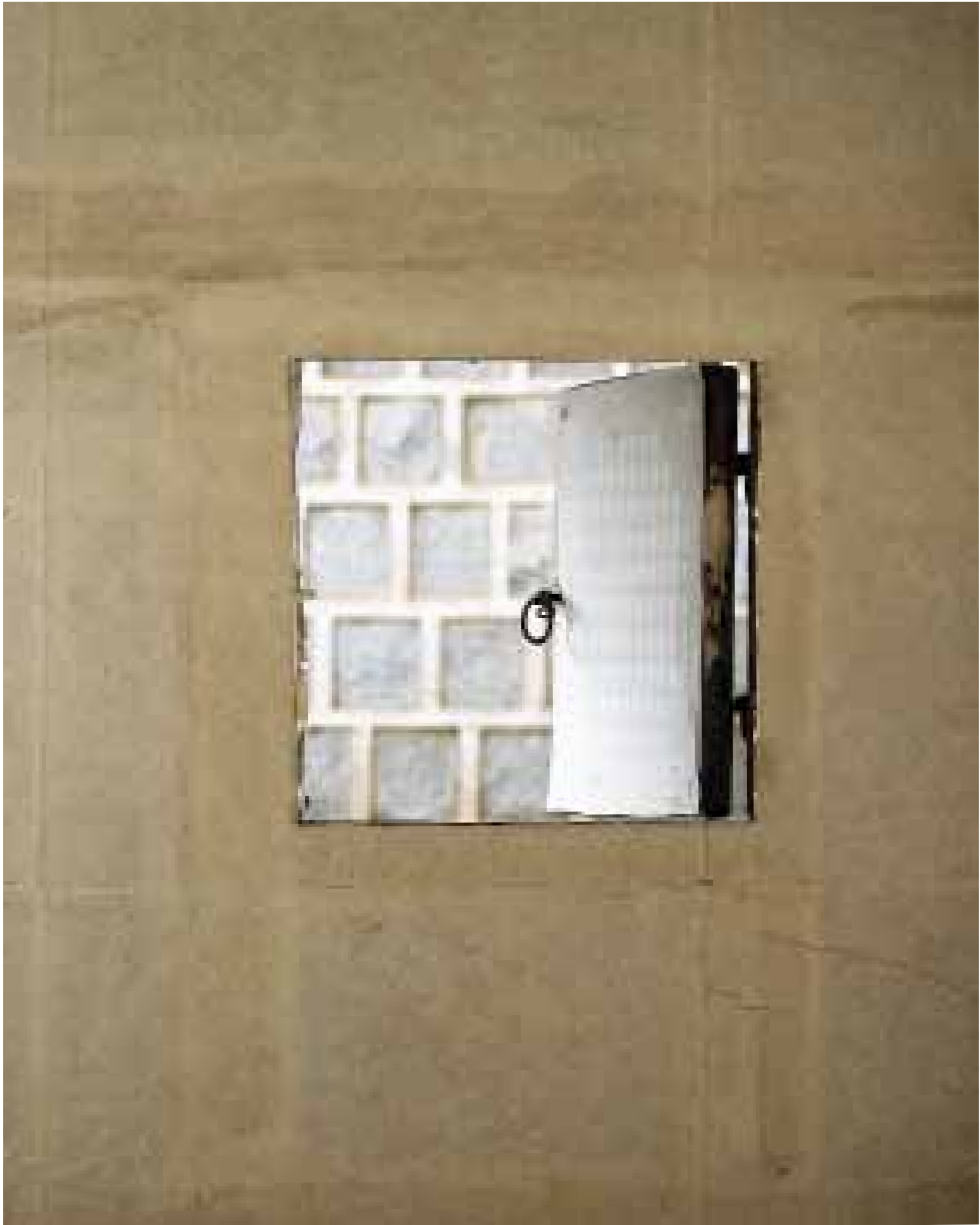




선비정신 오롯이 살아 있는 안동 도산서원

서원은 강학(講學)과 선현 제향을 위해 향촌에 세워진 성리학의 요람이었을 뿐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려는 성리학자의 높은 안목과 미(美) 의식을 보여주는 곳이다. 성리학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의 정신을 이어가는 안동의 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라고 할 만큼 소박함과 절제미가 빼어나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도산서원(陶山書院)은 경북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청량산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만나는 언저리에 있다. 매표소에서 도산서원까지는 완만한 산기슭을 500m쯤 돌아가야 한다. 맨 먼저 마주치는 것이 '추로지향(鄒魯之鄉)기념비'다. 1981년에 중국의 공자 77대 종손인 공덕성 박사가 이곳 도산서원 사당에 참배한 후 소감을 쓴 글이다. 권숙희 문화해설사는 "옛날이나 지금도 중국학자들이 우리 선조에게 참배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 직계 후손이 세계적인 성인인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라고 인정한 거죠. 퇴계 선생의 업적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강 건너편에는 시사단(試士壇, 지방유형문화재 제33호)이 섬처럼 놓여 있다. 1792년에 정조가 퇴계의 학덕을 기리고 지방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어명으로 특별과거인 도산별과를 실시했고, 당시의 영의정 번암 채제공이 글을 짓고 기념비를 세웠다. 정조가 퇴계를 얼마나 흠모했는지 알 수 있다. 과거 응시자는 모두 7천228명이었고 그중에 답안지를 낸 사람은 3천632명이었다고 하니 당시 유생들로 가득한 시사단 주변 별관을 상상해본다.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존된 대학자 퇴계는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서 좌찬성을 역임한

1, 2 도산서당은 퇴계가 말년에 내려와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도산서당에 게시된 현판은 모두 퇴계의 친필이다. 3 제자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농운정사의 문과 창문. 4 도산서원 전경. 5 도산서당의 앞마당에 있는 샘인 몽천. 6 도산서당은 세 칸 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건물이다. 7 퇴계는 도산서당의 완락재에 거처하면서 독서와 사색에 몰두했다.

이식의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는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 이우에게 논어를 배웠다. 이후 독학으로 도를 깨우쳤다. 퇴계는 27살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사마시에 합격했다. 34세 되던 1534년 문과 급제 후 단양군수, 풍기군수, 공조판서, 대제학, 예조판서, 우찬성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퇴계는 여러 차례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했고, 그때 양진암이나 한서암을 짓고 독서를 했다. 지금의 도산서당은 1560년 낙향했을 때 지었다. 퇴계는 기본 설계도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직접 지휘했다. 퇴계는 건축가로서의 안목과 실력도 출중한 유학자였다.

절제가 만든 작고 단아한 완락재

도산서원은 크게 도산서당과 퇴계 사후에 지은 서원으로 구분된다. 관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달리 서원은 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풍광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도산서원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 준 것은 도산서원 풍경이 그려진 1천원권 지폐였다.



1 광명실은 서책을 보관하는 서고로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2 전교당에서 내려다본 도산서원. 퇴계 선생 서거 후, 지방 유림의 건의로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사당과 함께 전교당과 동·서재, 진도문과 광명실을 지어 지금의 형태가 됐다.

앞쪽의 서당은 소박함과 절제미를 지닌 서원 건축의 백미다.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 건물이 농운정사이며 우측이 도산서당이다. 도산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도산서당은 방 1칸과 부엌 1칸, 마루 1칸 등 3칸밖에 안되는 한일자 형태의 남향 건물이다. 건물은 별다른 꾸밈이 없고 간결하다. 방과 마루 사이의 기둥에 붙어 있는 ‘도산서당’이라는 현판은 해서이나 정통성을 벗어나 전서의 느낌으로 서당과 잘 어울린다. 도산서당에 게시된 현판은 모두 퇴계의 친필이다. 도산은 옛날 이곳에 웅기 굽는 가마가 있었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퇴계는 거처하던 온돌방을 ‘완락재’(玩樂齋)라 하고, 동쪽 끝의 마루를 ‘암서헌’(巖栖軒)이라고 불렀다. 건물의 이름에 깃든 의미에는 깊이가 있다. 완락재는 주자의 ‘명당실기’에 나오는 ‘도(道)와 이(理)를 즐기고 완성하며 죽을 때까지 싫어하지 않는다’에서 따왔고 암서헌은 주자의 ‘운곡시’ 가운데 ‘학문에 오래도록 자신이 없었는데 바위에 깃들어서 작은 호험을 바란다’는 구절에서 났다. 퇴계는 완락재에 거처하면서 좌우에 도서를 쌓아두고 독서와 사색으로 노년을 보냈다. 완락재는 1칸의 방이지만 틈간을 조성해 이곳에 책 1천여 권을 꽂았으며 매화 화분과 지팡이, 훈천의, 침구를 두었다고 한다. 간결하고 검소한 방에서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절제된 품격이 느껴진다. 제자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대학자 퇴계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1칸의 온돌

방과 1칸의 마루에서 혼자 한밤중에 일어나 창을 열고 앉아 천지자연의 이치를 생각했을 것이다. 퇴계는 암서헌 마루에서 주변 자연경관을 즐겼다. 마당 한구석에 네모난 못을 조그맣게 파고 연꽃을 심어 정우당(淨友堂)이라 이름하고, 그 아래에 몽천(蒙泉)이란 샘을 조성했다. 굽어진 담장 건너편 산기슭에는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고 절우사(節友社)라고 불렀고 서당 앞 드나드는 곳에 사립문을 달아 유정문(幽貞門)이라고 이름 지었다. 서당이 완성되고 나서 퇴계는 주위의 담이나 문, 연못은 물론 주변 산수에도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이를 시로 읊어 도산잡영(陶山雜詠) 44수를 남겼다. 3칸의 서당 건물만이 아니라 도산계곡의 대자연을 경영하고자 했던 퇴계의 꿈을 엿볼 수 있다. 절우사를 지나 개울가를 따라가면 곡구암, 탁영담, 천연대라 이름 붙은 명소들이 나타나는데 퇴계가 매일 거닐면서 명상에 잠겼던 길이다. 서당을 짓고 난 이듬해 건립한 기숙사인 농운정사는 제자들에게 공부에 열중하기를 권장하는 뜻에서 공(工)자 형태로 지었다. 공(工)이란 글자는 위로는 하늘(一)과 아래로는 땅(一)의 이치를 사람(丨)이 깨달아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건물 내부의 채광을 고려해 동서남북으로 창문을 많이 만들었고, 앞 두 칸은 한쪽 벽이 없는 마루방으로 지어 공부하던 동편 마루를 ‘시습재’(時習齋), 휴식하던 서편 마루를 ‘관란헌’(觀瀾軒)이라 하였다.



3 장판각은 책을 인쇄하기 위해 만든 목판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이곳의 목판은 모두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옮겨 보관되고 있다.





선비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교당

1570년 퇴계가 70세로 별세하자 2년 뒤인 1572년(선조 5년) 제자들이 퇴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상덕사(尙德祠)를 짓고, 전교당(典敎堂)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동·서재를 지어 도산서원이라고 했다. 기존 서당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길어진 진입부를 5개의 낮은 단으로 조성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사이로 난 매화단을 올라가면 서원의 정문인 진도문(進道門)이다. 퇴계는 세상을 떠난 날 ‘매(梅) 화분에 물을 주라’고 당부할 만큼 매화를 좋아했고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 등 100수가 넘는 매화시를 남겼다.

진도문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진 광명실(光明室)은 서책을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고다. 정면에 위치한 전교당(보물 제210호)에 걸려있는 도산서원의 현판은 선조 임금이 1575년에 사액한 것으로 당대 최고의 명필인 한석봉이 어전에서 직접 쓴 글씨이다. 전교당의 추녀에는 유교의 기본 질서와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백록동규, 향사를 올릴 때 제관들의 역할 분담을 나타낸 집사현관분정관 등이 걸려 있다.

전교당 앞마당 양쪽으로 유생들의 기숙사인 박약재(博約齋)와 홍의재(弘毅齋)가 있다. 박약재는 ‘학문은 넓히고 예의는 지킨다’는 뜻이며 홍의재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굳세고 떳떳한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다. 건물 크기와 형태는 똑같지만 박약재에는 상급생이, 홍의재에는 하급생이 거처했다.

전교당 동쪽에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장판각(藏板閣)은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다. 건물의 규모도 크고 모든 벽은 나무판벽으로 만들어 습기 흡수에 유리하도록 했다. 또 벽 윗부분에는 살창을 내서 통풍을 쉽게 했다. 광명실에 있던 4천여 권이 넘는 서적과 장판각의 목판들은 2003년 5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됐다.



1 유생들을 가르치던 강당 겸 교실인 전교당과 기숙사인 박약재. 2 도산서원의 안내 표지판. 3 전교당에 걸려 있는 편액. 4 도산서원 강 건너편에 있는 시사단. 1976년 안동댐 건설로 물에 잠기게 되자 축대를 10m 높이로 쌓아올렸다. 5, 6, 7, 8 옥진각에는 퇴계 이황이 평소 사용하던 유품과 성학십도, 언행록, 사문수간, 도산 12곡 등의 서책들이 전시돼 있다.

전교당과 장판각 사이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 내삼문을 들어서면 퇴계와 수제자인 월천 조목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보물 제211호)이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향사를 지낸다.

상덕사의 서편에 위치한 전사청(典祀廳)은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일 음식을 상에 차리고 보관하는 장소다. 바로 옆의 고직사(庫直舍)는 남북으로 긴 ‘ㄱ’자형으로 서원 관리인이 거처하던 곳이다. 총 21칸 규모로 온돌방은 7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창고와 부엌이다.

퇴계의 유품을 전시한 옥진각(玉振閣)은 1970년에 신축한 건물이다. 선생이 평소 사용하던 목조 책상인 서기, 지팡이인 청려장, 매화등, 가는 왕골로 짠 기대는 방석, 침을 뱉을 때 사용하던 백자 타호 등을 살펴다 보면 소박하고 검소한 도학자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논어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라고 했다. 도산서원을 찾아 퇴계 정신을 기리면 흔쾌했던 마음에 맑은 정신이 스며드니 그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❶

